

섬마을 열악한 교육여건 이번엔 나아지나

전남교육청 '섬 교육 활성화' 대책
교사 인사 혜택 장기 근무 유도
보전·원어민교사 배치 차별 해소
방과후학교 운영비도 대폭 증액

“학생이 적다”는 이유로, “멀다”는 이유로 차별받던 섬마을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개선될까.
전남도교육청이 ‘섬마을 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기로 하면서 중등 교사의 섬마을 학교 기피현상 등 고질적인 섬마을 교육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에 지역민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5일 ‘섬 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2학기부터 시행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섬 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기로 했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전남의 전체 896개 초·중·고교 가운데 섬마을 학교는

97곳(10.8%)이다. 전체 학생(19만5683명) 중 섬 학생 비율은 1.5%(2874명)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중등교사들이 섬마을 학교를 기피하면서 경력교사가 빠져나간 자리에 수업과 지도경험이 부족한 초임교사가 투입되고 있어 ‘교육 차별’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3년 이상 장기 근무한 중등교사에 대한 ‘근무교 지역점’을 우대해 전보·승진 등 인사상 혜택을 줘, 섬마을 학교 경력교사 배치를 유도·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전남교육 정책연구소에 연구를 의뢰해 인사 구역과 근무 연한, 가산점 등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사·군 단위 구역에서 8년 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한 ‘구역근속 상한 연한’도 개정해 내년부터 ‘해남·완도·진도·신안’에서는 8년 이상 장기근무가 가능하도록 적용할 방침이다.
더불어 규모가 적다는 이유로 보전·사서

교사가 없어 위생관리와 독서교육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년간 장기근무가 조건인 ‘지역단위 교원임용제’로 보전·사서교사 선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섬지역과 도심 학생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당장 오는 2학기부터 원어민 교사가 없는 5개 학교에 각각 1명씩 5명의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고, 이들이 주변학교(총 10개교)를 순회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원어민 교사 배치에 불가능한 곳은 방학중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캠프와 키다리 영어프로그램(파닉스교육)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방과후학교 내실화’를 위해 방과후학교 운영비를 현행 학급당 150만원에서 2020년부터는 250만원으로 100만원씩 증액한다.
섬지역은 교통 불편 등 지리적 여건 탓에 외부강사 확보가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늘어난 운영비로 외부강사 수당을 인상하고, 교통비와 기상악화 시 숙박비 지

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강사확보를 돕겠다는 취지다. 교육지원청의 순회강사 사업비도 증액해 섬마을 학교의 교육격차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 교사들의 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화상 시스템을 도입하고, 섬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를 확대 지원한다.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을 위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우선권 부여와 미래형 소프트웨어(SW) 교육 공간을 완도·고흥지역에 우선 구축하는 등 섬지역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김영중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섬마을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전남교육 방향과 맞지 않다”며 “모든 학생이 똑같은 출발선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섬 교육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광주천 정화 함께해요” 연일 35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 호남대 학생 100명이 5일 오전 광주공항에서 출발해 서창다리~상무교~동천교~광천1교~광주공원까지 걷기대회와 함께 광주 천변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8월 16·17일 택배 없는 날 지정”...택배노동자들 여름휴가 돌입

택배노동자들이 여름휴가를 가기 위해 집단행동에 돌입한다.
택배노동자 기본권 쟁취 광주투쟁본부(이하 광주본부)는 5일 광주시 남구 송하동 CJ대한통운 광주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8월 16~17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하기 위해 국민들과 택배업체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광주본부는 우체국택배·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한진택배·로젠택배 등 대형택배업체에 소속

된 근로자 20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택배노동자들은 하루라도 쉬려면 배송수수료의 두배에 가까운 금액을 주고 대신 배송할 사람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휴가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라며 “택배노동자의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택배 없는 날’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택배 없는 날’이 지정되기 위해 흡소팡·인터넷쇼핑몰 등 고객사는 홈페이지

지 안내 등을 통해 8월 13~15일 주문을 받지 않거나 배송지연 양해 등에 대한 공지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국민들도 우리들의 처지를 고려해 택배주문을 피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광주지역 조합원들은 오는 7일 각자 소속업체에 집단 휴가서를 제출하며 ‘택배 없는 날’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집단 행동에 돌입할 방침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강진~광주 고속국도 공사 폐골재 재활용 토사 사용

강진~광주간 제255호선 고속국도가 친환경도로로 만들어진다.
한국도로공사 강진광주건설사업단(이하 사업단)은 “현재 진행 중인 강진~광주 간 고속국도 건설공사에 환경표지 인증제품 순환토사를 흙쌓기용 재료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강진~광주 고속도로는 나주평야 구간을 통과함에 따라 흙쌓기를 위한 대량의 토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토취장(흙을 채취하는 장소)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나주호 준설토를 활용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환경보전이 우선이라는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이에 사업단은 지난 1일 나주시 봉황면 소재 조은산업주파 ‘환경표지 인증제품 순환토사 성토재 활용 및 무상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대안을 마련했다.
순환토사란 건설폐기물법 기준을 충족한 폐골재를 건설공사용 토사로 재활용한 것이다.
사업단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토취장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훼손을 방지하고 사업비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7년 8월 착공한 고속국도 제255호선 건설공사는 강진군 작천면·영암군·나주시·광주시 서구 벽진동 구간에 길이 51.1km 양복 4차로를 조성하는 공사로, 2024년 12월 개통이 목표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45
해질녘 19:32
달뜨기 11:17
달지기 23:10

태풍 대비 철저

차차흐려져 늦은 오후부터 비 내리겠다.

광주	차차흐려져비	26/34	보성	차차흐려져비	24/33
목포	차차흐려져비	26/32	순천	차차흐려져비	26/34
여수	차차흐려져비	26/31	영광	차차흐려져비	25/34
나주	차차흐려져비	25/34	진도	차차흐려져비	25/32
완도	차차흐려져비	25/32	전주	흐림	25/33
구례	차차흐려져비	24/34	군산	흐림	25/34
강진	차차흐려져비	25/33	남원	흐림	23/33
해남	차차흐려져비	24/33	흑산도	구름많음	25/29
장성	차차흐려져비	24/34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1.0	북서~북	1.0~2.0
남해 앞바다	북~북동	1.0~2.0	북서~북	1.5~2.5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0~2.5	남동~남	2.0~4.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동~동	2.0~4.0	남동~남	3.0~5.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북동	2.0~3.0	남~남서	2.0~3.0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11:08 23:24	06:06 18:28
여수	간조	만조
	06:36 18:57	00:34 13:00

◇ 주간 날씨

7(수)	8(목)	9(금)	10(토)	11(일)	12(월)	13(화)
25/32	25/33	25/33	24/32	24/31	24/31	23/31

광주시교육청 내일 초·중고 1428명 검정고시

광주시교육청이 7일 ‘2019년도 제2회 초·중·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시행한다.
이번 검정고시에는 초졸 78명, 중졸 218명, 고졸 1132명 등 1428명이 지원해 지난해 2회때(1390명)보다 38명 증가했다.
시험 장소는 광주공업고등학교(고졸), 전남공업고등학교(초·중졸), 광주소년원, 광주교도소 등 4곳이다. 장애인 응시한 시험실은 시간연장, 대독, 대필 등 시험 편의를 제공한다.

응시자는 신분증과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중·고졸), 흑색볼펜(초졸) 등을 지참해 시험 당일 오전 8시 4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 사진과 동일한 사진 1장을 지참해 당일 8시 20분까지 해당 시험장 1층 현관에서 재교부 받아야 한다.
합격자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9월 중 합격증서 수여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 남구, 장애인 3490명 취업 실태조사

장애인고용공단과 취업 지원

광주시 남구가 지역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취업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장애인 취업지원 현황 조사를 추진한다.
5일 남구에 따르면 이번 장애인 취업지원 현황 조사는 이달말까지 남구

등록 장애인 349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남구는 1대 1 전화 상담을 통해 취업·실업의 여부를 파악하고, 실업자 가운데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해 취업 상담과 일자리 제공, 교육 훈련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